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문 은 식¹⁾

강원대학교 유아교육과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한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자료 가운데 중학교 3학년 남녀학생 2,259명이다. 측정도구는 또래애착 검사, 자아정체감 검사, 진로정체감 검사, 학교생활적응 검사가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LISREL 8.54에 의한 경로분석이 실시되었고,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또래애착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진로정체감에서 자아정체감으로의 경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진로정체감의 경우에는 자아정체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언변인들(또래애착,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의 학교생활 적응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42%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또래애착이 자아 및 진로정체감 형성과 학교생활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자아정체감도 학교생활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학교생활 적응

*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2 중1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2014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수행되었음(관리번호-220140113).

1) 교신저자 : 강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E-mail : esmoon@kangwon.ac.kr)

I. 서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발달과 함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므로 청소년들은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이은경, 박성연, 2011). 자아를 실현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변화의 주체로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는 청소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탐색·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계발시켜서 바람직한 진로를 선정할 수 있게 해 주며, 의미 있는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박아청, 우채영, 2008). 중학생은 자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기로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고 개인 내적인 혼란과 방황을 겪으면서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며 보다 성숙된 인격체로서의 자기 모습을 정립해 나간다. 중학생 단계는 초등학교와는 다른 형태의 수업과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아동기보다 사고의 범위도 늘어나 지적 수준도 향상되고 이에 따른 심리적 변화도 맞이하게 된다(금지현,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 2013). 또한 중학생 시기는 진로선택의 결과가 고등학교 진학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인 진로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것도 중요한 발달과제이다(김우리, 박영희, 김정섭, 2014). 이렇듯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은 자아정체감 형성과

더불어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 현명한 진로선택,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특히 중학교 시기의 또래관계(애착, 사회적 지지)는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김분, 최연실, 2012; 김우리 외, 2014; 박아청, 우채영, 2008; 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 이예진, 2014; 황효진, 이용남, 2012).

해마다 많은 학생이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떠난다.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갈수록 황폐해지는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가족부의 ‘2011~2013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자료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하루 200명꼴로 3년 간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연도별로 2011년 76,589명, 2012년 74,365명, 2013년 68,188명으로 최근 3년 간 총 219,144명이었다(데일리중앙, 2014. 10. 29). 교육부(2014)는 2013년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총 2,119,9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서면으로 실시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초·중·고 학생 중 사춘기 시기인 중학생이 정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의 관심군(정서·행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집단)이 11.0%(65천명)로 고등학생 9.0%(56천명), 초등학생 3.4%(30천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도 중학생이 3.5%(20천명)로 고등학생 3.0%(18천명), 초등학생 0.7%(6천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과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더 많이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학생의 경우 ‘내 자신이 누구인지’(예: 나의 장점과 단점 이해, 목표, 가치관 등), ‘나의 미래 목표와 진로는 무엇인지?’에 대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탐색하고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자아정체감은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한 인간으로서의 행동규준과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박아청, 이승국, 1999). 자아정체감이 잘 발달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은 동기, 흥미, 가치 등을 공유하더라도 자신을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독특한 개인’으로 지각한다(박아청, 2004). 한편, 청소년기는 Super의 진로발달단계 중 진로탐색기에 해당한다. 진로탐색기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주요한 진로발달 과업으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로 나누어진다. 진로탐색기를 15~24세로 볼 때 한국 청소년들의 잠정기는 중학생 시기, 전환기는 고등학생 시기, 그리고 시행기는 대학생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조병환, 2013). 이는 중학생 시기인 잠정기에서 직업과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전환기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시행기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손연아 외, 2014). 진로정체감이란 진로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 등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의미하는 것(김우리 외, 2014)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 진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미래계획과 관련이 있으며

자신과 일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윤영란, 2009). 여러 선행연구들은 중학생이 또래와 정서적·심리적으로 일관성 있고 밀접하게 유대관계를 맺는 것은 그들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분, 최연실, 2012; 김우리 외, 2014; 문은식, 2002;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 황효진, 이용남, 2012). 또한 이현림과 천미숙(2003)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또래관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황효진, 이용남, 2012), 진로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의 관계(김우리 외, 2014), 진로성숙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홍향연, 유태명, 2008) 등과 같이 또래관계, 자아 및 진로 정체감,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문은식(2002)은 학교생활 적응의 개념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외현적·내재적 행동을 학교생활 적응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학교생활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적 변인(부모, 교사, 친구 관계의 질)과 심리적 변인(학업동기, 심리적 안녕)을 제시하였다. 신미와 동료들(2012)은 초기 청소년의 인간관계(부모, 친구, 교사, 이웃관계)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성장 발달과 밀접한 또래 및 친구관계는 정서적·심리적으로 친밀하

고 원만한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자기상을 확립하고 진로발달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아름, 이지희, 최보영, 2010). 또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학교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현림, 천미숙, 2003).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중학생의 인간관계 변인(부모·친구 관계)과 내적인 심리적 변인(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이 학교생활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된 변인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개인 외적 변인인 또래애착과 내적인 심리적 변인(자아 및 진로정체감)이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리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한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경험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한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은 어떠한 경로로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되는 변인들로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그리고 진로정체감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학교생활 적응이 인간관계(또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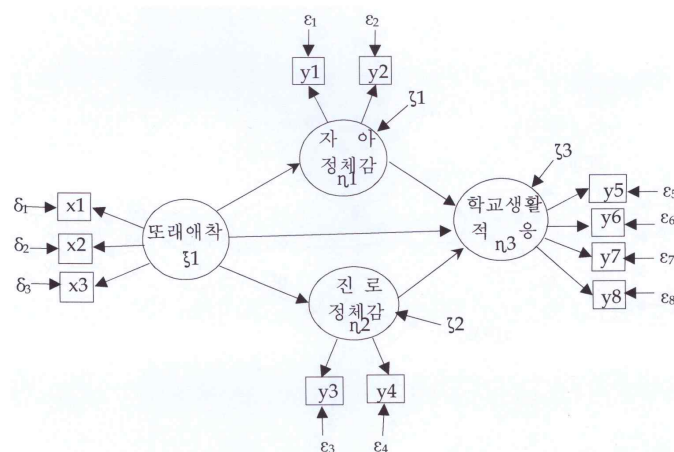


그림 1.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

애착)와 개인의 심리적 특성(자아정체감, 진로 정체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구조적 관계 모형 설정에 기초가 되는 선행연구들(김아름 외, 2010; 문은식, 2002; 신미 외, 2012; 이현림, 천미숙, 2003)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2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 1패널 3차년도 자료로서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2,259명(남학생 1,140명, 여학생 1,119명)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에 전국의 7개 광역시와 9개 도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확률표집(층화다단계집락추출)에 의거하여 표본을 추출한 뒤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추적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2010년에 1차년도 대상인 중학교 1학년이 3학년이 된 2012년 9월말에서 11월에 추적조사가 실시되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2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로서 또래애착 검사, 자아정체감 검사, 진로정체감 검사, 학교생활 적응 검사가 사용되었다.

또래애착 검사

이 검사는 황미경(2010)의 또래애착 검사 13

개 문항 중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 4개를 제외하여,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 소외 3문항, 전체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2012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또래애착 검사도 전체 문항은 9문항이고, 하위요인들의 문항 구성은 의사소통 3문항(예: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신뢰 3문항(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소외 3문항(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양식은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척도이고,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소외 3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산출한 이 검사의 전체 문항(9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82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알아보면, 의사소통 .84, 신뢰 .79, 소외 .77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검사

이 검사는 송현옥(2008)의 자아정체감 척도(총 27개 문항) 중에서 8개 문항을 선정하여 수정·보완한 검사이다. 이 검사는 본래 박아청(2003)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로 정체감 상태에 따른 이론적 검증을 거쳐 6개 하위영역 10문항씩 총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중·고·대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을 거쳤으며, 다차원적인 자아정체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와 생활에 맞게 개발되었다. 송현옥(2008)은 연구목적에 맞게 5개 하위영역(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27개 문항을 사

용하였다. 자기수용성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미래확신성은 자신의 장래 할 일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목표지향성은 장래의 자아상을 파악하고 자기 스스로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을 신뢰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주도성은 자신 주변의 일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친밀성은 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융통성과 주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뜻한다.

이 검사의 문항 응답양식은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척도이다. 이 검사는 긍정적인 문항 4개(예: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와 부정적인 문항 4개(예: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은 자아정체감1로, 부정적인 내용은 자아정체감2로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산출한 이 검사의 전체 문항(8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63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검사

이 검사는 공인규(2008)의 진로정체감 척도(총 30문항) 중에서 8개 문항을 선정하여 수정·보완한 검사이다. 이 검사는 진로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추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

로, 하위척도에는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을 포함하는 5개 하위요인이 있으며, 하위요인별로 각각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인규(2008)는 진로정체감 검사의 전체 신뢰도(Cronbach α)가 .68임을 보고하였다.

이 검사의 문항 응답양식은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잘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검사의 대표적인 문항의 예에는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가 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서는 진로정체감 1(전반부 4문항)과 2(후반부 4문항)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산출한 이 검사의 전체 문항(8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 검사

이 검사는 문선모(1984)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와 이상필(1990)의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의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 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생활 적응 검사의 하위요인에는 학습활동(예: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학교규칙(예: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교우관계(예: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교사관계(예: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가 있고, 하위요인 모두 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양식은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의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산출한 이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는 학습활동 .74, 학교규칙 .79, 교우관계 .58, 교사관계 .84, 전체 .87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ISREL 8.54를 이용한 공분산구조분석이 실시되었다. 또한 PASW 1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상관관계수, 신뢰도 등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적합도 지수로 AGFI, NNFI, CFI, RMSEA, χ^2/df 를 산출하였다. χ^2 는 표본의 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의 크기에 따라 기각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NNFI는 표본의 크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가 작을수록 그리고 모형이 간명할수록 그 값이 증가한다(홍세희, 2000). CFI는 모형의 간명성은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를 측정한다. 그러나 모형이 간명성을 상실한 채 불필요하게 복잡해도 CFI는 좋아질 수 있으므로, 모형

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다른 지수(예: NNFI, RMSEA)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RMSEA는 표본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이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판단 기준을 알아보면, AGFI는 수정된 R^2 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대략 .85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홍세희, 2000). NNFI와 CFI는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모형이며, 대략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다(조현철, 1999). RMSEA는 그 값이 < .05이면 좋은 적합도,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 .10이면 보통의 적합도로 평가된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초자료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는 .06~.77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진로정체감의 하위 측정변인 간의 상관이 .77로 가장 높고, 반면 자아정체감과 학교규칙 간의 상관이 .0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측정변인들의 편포도와 첨도를 알아보면, 편포도의 절대값은 .05~.51, 첨도의 절대값은 .06~1.40으로 나타났다. 편포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1이하이면 단일 변인에 대해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생활 적응의 학습활동과 교우관계를 제외한 8개의 측정변

표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N = 2,259)

잠재변인	측정변인	y1	y2	y3	y4	y5	y6	y7	y8	x1	x2	x3
자아 정체감	y1	1										
	y2	.11	1									
진로 정체감	y3	.53	.13	1								
	y4	.56	.13	.77	1							
학교생활 적응	y5	.31	.06	.17	.23	1						
	y6	.27	-.01 ^{ns}	.14	.18	.41	1					
	y7	.33	.15	.21	.23	.40	.34	1				
	y8	.30	.08	.18	.22	.39	.39	.40	1			
또래 애착	x1	.32	.12	.22	.24	.27	.18	.42	.28	1		
	x2	.28	.12	.22	.24	.25	.15	.42	.26	.76	1	
	x3	.02 ^{ns}	.27	.04 ^{ns}	.02 ^{ns}	.08	.06	.11	.01 ^{ns}	.15	.19	1
	M	2.25	2.43	2.02	2.07	2.23	2.14	1.88	2.11	1.94	1.85	2.09
편포도 침도	SD	.57	.54	.66	.65	.45	.54	.45	.63	.53	.56	.73
	편포도	-.17	.05	.10	-.07	.35	.13	.19	.14	.12	.43	.51
	침도	-.07	.37	-.61	-.60	1.40	.85	1.09	.06	.97	.87	.12
내생변인		y1: 자아정체감1 y2: 자아정체감2 y3: 진로정체감1 y4: 진로정체감2 y5: 학습활동 y6: 학교규칙 y7: 교우관계 y8: 교사관계										
외생변인		x1: 의사소통 x2: 신뢰 x3: 소외										

주. 모든 상관계수의 p 값은 .01수준에서 유의함(단, ns는 유의하지 않음).

인들은 이 가정을 만족하고 있다. 또한 편포도의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아 다변량정규성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Curran, West, & Finch, 1996). 따라서 본 연구의 경로분석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추정 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가설적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이 모형은 중학생이 지각한 또래애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인 인과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산출한 전반적 적합도 지수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전반적 적

표 2. 가설적 인과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N = 2,259$)

구 분	$\chi^2/df(p)$	AGFI	NNFI	CFI	RMSEA
적합도 지수	1167.74/39 ($p < .001$)	.86	.85	.89	.11
적합도 기준	$p > .01$	$> .85$	$> .90$	$> .90$	$< .10$
판 정	부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합도 지수들은 AGFI만 적합하고 나머지 지수들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생변인들(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학교생활 적응) 간의 경로에 대한 수정지수와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확인한 결과, 자아정체감(η_1)과 진로정체감(η_2) 간의 수정지수가 643.36으로 나타났다. 김연미(1998)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그리고 정미선(2009)은 Holland 진로탐색 상담프로그램이 전 문계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선행연구와 수정지수에 근거하여 진로정체감 $\rightarrow$ 자아정체감의 경로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또한 진로정체감 $\rightarrow$ 학교생활 적응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경로를 지정에서 해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수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를 다시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면, 최종 수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에서 χ^2 를 제외하고 AGFI, NNFI, CFI, RMSEA의 지수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고, 본 연구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표 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 수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최종 수정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2. 연구문제 1의 결과

연구문제 1(중학생이 지각한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은 어떠한 경로로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을 해결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분석된 구조적 관계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내생변인들의 중다상관 자승치(R^2)가 자아정체감은 .53, 진로정체감은 .09, 학교생활 적응은 .42로 나타나 관련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각각 53%, 9%, 42%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생활 적응의 전체 변량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이 42%로 양호한 편이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적 관계 모형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표 3. 최종 수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N = 2,259$)

구 분	$\chi^2/df(p)$	AGFI	NNFI	CFI	RMSEA
적합도 지수	445.67/39 ($p < .001$)	.94	.95	.96	.07
적합도 기준	$p > .01$	$> .85$	$> .90$	$> .90$	$< .10$
판 정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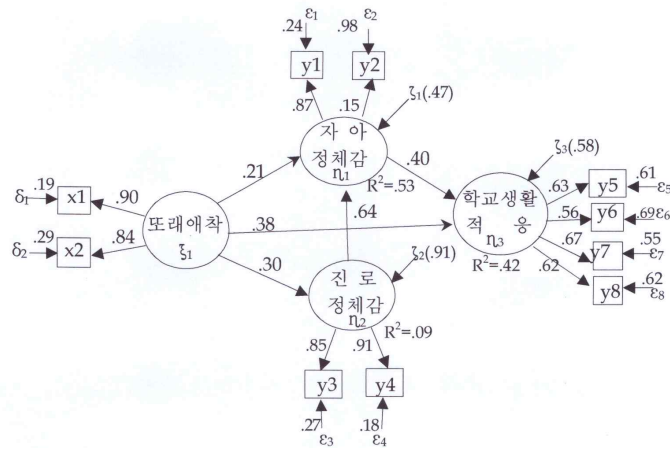


그림 2.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의 경로분석 결과

을 상당한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또래애착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은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각각 $\beta = .21$, $\beta = .30$)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애착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38$)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생변인들 간의 상호 영향을 알아보면,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beta = .64$)을 주고, 자아정체감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26$)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자아정체감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beta = .40$)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또래애착은 진로정체감 및 자아정체감 형성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자아정체감은 또래애착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연구문제 2의 결과

연구문제 2(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해결하기 위해 산출한 예언변인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전체 및 직·간접 효과는 표 4와 같다.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면, 또래애착($\beta = .53$)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은 자아정체감($\beta = .40$), 진로정체감($\beta = .26$)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애착은 ‘진로정체감 → 자아정체감’의 경로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에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beta = .26$)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전체 및 직·간접효과

예언 변인	학교생활 적응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간접효과 경로
또래애착	.53**	.38**	.15**	또래애착 → 자아·진로 정체감
자아정체감	.40**	.40**	.	
진로정체감	.26**	.	.26**	진로정체감 → 자아정체감

** $p < .01$.

IV. 논의 및 결론

중학생이 지각한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을 이론적으로 설정하고, 이 가설적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 적응의 전체 변량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설명력은 4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한 최종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표 3)도 양호한 편이다.

경로분석 결과, 또래애착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은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학교생활 적응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이 지각한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또래애착은 ‘진로정체감 → 자아정체감’의 경로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진로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은 또래애착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부모 및 친구 그리고 교사관계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신미와 동료들(2012)의 연구, 청소년의 친밀하고 원만한 또래관계는 긍정적인 자기상 확립 및 진로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김아름과 동료들(2010)의 연구, 그리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학교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이현림과 천미숙(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렇듯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중학생의 또래애착은 그들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 형성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 및 교사는 동료들 간에 신뢰롭고 소외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 의견, 꿈, 그리고 고민거리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경험(예: 토의식 수업, 협동학습, 놀이, 스포츠 활동 등)을 제시하여 원만한 또래관계를 촉진시킬 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경험들은 중학생의 또래애착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 또래애착은 그들의 진로 및 자아정체감 형성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학교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한편,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면, 또래애착이 가장 큰 효과를 주고, 그 다음으로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순으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동료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고 존중하는 또래애착이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자아정체감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반면,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을 통해 학교생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 형성이 선행 조건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힘으로서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이론적·경험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즉,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신뢰할 수 있고 소외감이 없는 또래애착은 중학생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중학생 시기에 교사는 그들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교과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생활지도 등에서 또래들 간의 협동학습, 토론,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뚜렷한 목표와 삶의 철학 그리고 성취동기를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2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로서 다양한 영역(학습습관, 정서문제, 자아인식, 가정환경, 친구관계, 학교생활 적응, 매체환경, 문화환경 등)을 측정하고 있어 원 검사 문항보다 적은 문항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또래애착 검사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것으로 총 25문항이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9문항만으로 의사소통(3문항), 신뢰(3문항), 소외(3문항)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자아정체감 검사는 송현옥(2008)의 총 27개 문항 중에서 8개 문항만을 선정하여 수정·보완하고, 진로정체감 검사는 공인규(2008)의 총 30개 문항 중에서 8개 문항만을 선정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되었다.

둘째, 여러 선행연구(김형태, 1989; 송현옥, 박아청, 2009)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 즉 가정의 자율적 분위기,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 만나는 교사와 또래들과의 관계, 수업분위기는 그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김양순, 현희순, 1999; 이현립, 천미숙, 2003).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형성의 선행변인으로 또래애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또래애착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관계도 함께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공인규 (2008). Holland진로탐색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진로효능감, 진로정체감 및 진로장애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부 (2014.9.23). 2013년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보도자료].
- 금지현,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 (2013).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정 및 개인 관련 변인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2), 119-143.
- 김 분, 최연실 (2012). 초등학생의 부모·교사·또래 애착 유형별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 대한가정학회지, 50(1), 1-13.
- 김아름, 이지희, 최보영 (2010).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5년 종단연구-성별 및 부모·또래와의 애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43-862.
- 김양순, 현희순 (1999).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1), 249-262.
- 김연미 (1998).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인간이해, 19, 69-88.
- 김우리, 박영희, 김정섭 (2014). 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8(2), 333-352.
- 김형태 (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데일리중앙 (2014.10.29). 학업중단 청소년 3년 간 20만명, 하루 200명꼴.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Print.html>에서 2015년 1월 12일 인출.
- 문선모 (1984). 중학생의 배경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경상대학교 논문집, 23, 295-301.
-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 박아청 (2004).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의 특성 분석. 교육심리연구, 18(1), 201-312.
- 박아청, 우채영 (2008).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의사결정 수준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2(1), 69-85.
- 박아청, 이승국 (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교육심리연구, 22(1), 69-85.
- 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7(1), 109-125.
- 송현옥 (200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간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현옥, 박아청 (2009).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간의 구조분석. 교육심리연구, 23(2), 297-321.

- 신 미, 전성희, 유미숙 (2012).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3(1), 81-92.
- 윤영란 (2009).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진로 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15(1), 91-106.
- 이상필 (1990). 학교생활 적응수준에 따른 학업 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예진 (2014). 전환기 청소년의 개인특성, 또래애착 및 부모양육행동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 의존도의 매개효과 검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2), 519-528.
- 이은경, 박성연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01-123.
- 이현림, 천미숙 (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10(4), 511-541.
- 정미선 (2009). Holland 진로탐색 상담프로그램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병환 (2013). 진로교육프로그램이 문제행동 청소년의 진로의식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철 (1999). LISREL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석정.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임상*, 19(1), 161-177.
- 홍향연, 유태명 (2008).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3), 49-64.
- 황미경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효진, 이용남 (2012). 중학생의 또래관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연구*, 35, 25-52.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1 차원고접수 : 2015. 01. 13.

수정원고접수 : 2015. 02. 12.

최종게재결정 : 2015. 03. 0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er Attachment, Ego-identity, and Career Identity Influencing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Moon, Ehun-Shik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er attachment, ego-identity, career identity, and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Data from the 2012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as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del is appropriate in terms of goodness-of-fit and path significance based on the validation procedur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one exogenous (peer attachment) and two endogenous (ego-identity, career identity) variables had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n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via five pathways, and that the predictive power for the total variance of school adjustment was 42%. For the total effect, the most contributive variable to their school adjustment was peer attachment, followed by ego-identity, and career identity. The findings of the study provide a basic framework for the structural understand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vention strategies to improve the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Keywords: peer attachment, ego-identity, career identity, school adjustment